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http://www.andongkwon.or.kr

ISSN 1739-9203 09

제117호

2008년 9월 1일 월요일 · 매월 1회 1일 발행
음력 戊子年 權氏紀元 1079년 8월 2일 甲辰

발행인겸편집인 權五焄 · 인쇄인 洪政旭

발행소: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 경북안동시북문동24-1·760-120
전화 (054)857-7705 · 857-7713~7714 전송 (054)857-7715
서울분사 : 서울 종로구필운동 288-1 · 110-044 · 전송 (02)738-8935
전화 (02)723-4480 · 732-9139 · 735-7179
등록: 경북 라-01055호 [99.4.7.] e-mail : webmaster@andongkwon. or. kr

주간權琪奉 · 기자權奇允 / 편집고문權海玉 · 權宅鎭 · 權五庠 · 權赫來
편집위원權在琮 · 權海兆 · 權甲鉉 · 權五達 · 權容根 · 權奇奭 (客員)
종원회비1년2만원 / 계좌: 우리은행1005-601-070005 (주)안동권씨종보사

宗 說

일곱소리 마을

옛날 소리마을에서 시끄럽기로 소문난 ‘ 일곱소리마을 ’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 도레미파솔라시 ’라는 일곱 소리가 함께 살았다. 이 마을 아이들이 한곳에 모여 심각히 고민했다.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제 주장만 하며 양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일곱 가지 목소리가 날마다 시끄럽게 소용돌이쳤다. 도가 도도하게 제주장을 하면 솔은 웃기지 말라며 소리지르고 시는 시시콜콜 시비를 일삼았다. 파는 툭하면 팍팍 주먹을 휘두르고 라는 한밤중에도 랄라랄라 목청을 뽑으며 미는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내고 덤볐다. 레는 레에레에 소리를 내며 야유를 하니 이런 일곱소리가 어우러져 이 마을은 편할 날이 없었다.

속상한 나머지 어린 도도가 하늘에, 어른들이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빌며 울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린 미미와 솔솔도 같이 울면서 빌었다. 레레와 파파와 라라、시시도 모여들어 함께 기도하다가 아이들은 스스로 놀랐다. 기도하면서 한데로 모인 아이들의 일곱가지 목소리가 새로운 화음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우러진 일곱 가지 목소리는 점점 아름답고 환상적인 화음으로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일곱 소리가 이렇게 어우러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화음을 발견한 일곱소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화음을 노래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하였다.

그때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던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모두 놀라고 말았다. 일곱소리 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듣는 것은 어른들도 처음이었다. 그제야 일곱소리 마을 어른들은 자기들 목소리가 악다구니를 멈추고 서로 부드럽게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그 뒤로 일곱소리 마을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일곱소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만 나더니 이윽고 소리나라에서 일곱소리 마을이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서 나온 화음이 온세상으로 퍼져가며 아름다운 음악을 이루어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음악예술이 충만하게 하고 있다.

이상은 국제제자훈련원이란 곳에서 쓰는 책자에 나온 동화를 요약해 인용한 것이다. 이 세상에 음악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없다. 그런데 그게 서로 다른 일곱 소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기한 것은 원래 이 일곱 소리가 서로 다투어 싸우면 시끄러워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서로 순화되어 화음을 이루면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이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화調和의 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종중도 이와 견주어 하나도 다를 이치가 없을 것같다. 목하 우리 종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작고 크고 간에 어른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서도 화음보다는 불협화음이 시끄럽게 나오고 있다. 이런 우리 종중에 어른들을 시원하게 일깨울 어린이들의 합창이 울려퍼져 들레일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는 마음 참으로 목이 마르다. 權琪奉 주간

▲ 이천시 율면 산양2리의 양아리 마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안터마을과 인접해 있는 이곳이 권양촌가의 구업이라는 설이 대두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남강공묘하의 추모재가 중건되어 고유례를 드리고 있다.<관련기사 6면>

문충공 양촌선생의 표준영정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조선조 최초의 문형文衡으로 사범대동師範大東의 칭을 받은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 추밀공파 시조후 16世)선생의 국가 공인 표준영정標準影幀 2본을 제작하여 1본은 국립박물관에 기탁하여 영구보존케 하고 1본은 적의한 곳에 영당影堂을 세워 봉안코자 합니다. 역사적 인물의 국가표준영정은 각급 교과서、사전류 등 서적 출판물에 활용 등재되고 화폐、우표 등의 도안으로도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퇴계、율곡、이순신 장군상이 모두 표준영정입니다.

담임화가 : 국가표준영정 7인과 전통인물화의 명장 동강東江 권오창權五昌 화백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제작기간 : 당국의 심사를 거치기까지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되나 이를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모금 목표액 : 5천만원. 모금은 10만원 이상부터 받으며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목표액을 초과하면 이를 후일의 영당건립기금으로 적립할 것입니다. 양촌선생의 후손과 문중은 물론 방손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양촌선생기념사업회 02) 735-7179

입금계좌 : 농협 003-12-112976 권오훈

양촌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權五容

입금 현황

안동권씨종보사 편집인 권오훈權五焄 금 500만원
안동권씨안숙공종회장권병홍權炳洪금 10만원
김포시 김포2동권태명權泰明금 10만원
양촌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권오용權五容 금 100만원
성남시 분당구권중희權重熙금 10만원
권태진금 10만원
구리시 인창동 권영환금 10만원
수원 송죽 통덕랑공종회권영갑權寧甲금 10만원
부산 금정구 대종회 원임권세만權世萬금 10만원
부산 기장권만호權萬浩금 20만원
강서구 개화동 권영우權寧禹 금 5만원
안동권씨안기동화수회 금 10만원
서울 도봉구 창동권기봉權琪奉금 10만원
서울 도봉구 쌍문동 권오필權五泌 금 10만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권오규權五奎 금 10만원
경기 의왕시내손동 권선군 금 10만원
울산시 중구오정동 권일수 금 10만원
충남 보령시 대천동 보령종친회(권영주) 금 30만원
경남 김해시 동상동 권동기權東基 금 10만원
서울 강서구 신정6동 권오범權五範 금 20만원
무주군 무주읍 어초공종중 권경진權景振 금 10만원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권순무權純武 금 10만원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권원희權元喜 금 10만원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권영진權寧振 금 10만원
광명시철산1동(삽교문중회장) 권중업權重業 금 10만원
김제시 진봉면 신포리 권영환權寧煥 금 10만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권태의權泰義금 20만원
대구 남구 대명1동권영록權寧祿금 10만원
서울강동구 명일동 권혁준금 10만원
고양시권오갑權五甲금 10만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권태완權泰完 금 100만원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권대길權大吉금 10만원
신한은서울태평로 파이낸셜센터지점 권오현 금 10만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권태웅權泰雄금 20만원
봉례공 신철원문중권재희權載喜금 10만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권순무權純武금 10만원
일본 중부지구종친회 권태수權泰洙 금 100만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 權赫殷금 10만원
충남 서천군 한산면권용표權龍杓금 10만원
전북 김제시 신풍동 서령공종중금 10만원
부천시 오정동 권영환금 10만원
충남 청양 권영오금 10만원
경기 양주시 익명인금 10만원
충남 연기군 전동면권용근權容根금 50만원
서울 종로구 원서동권대성權大成금 10만원
대구 동구 괴정동 권혁길금 10만원
경기 하남시 창우동권혁정權赫政금 10만원
전북 순창권효택權孝宅금 10만원
경기 과천시권상목權相穆금 10만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권태일 금 100만원

2008년 8월 20일 현재 합계 1,445만원